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4호 [루게 제2660호]

주제 110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음력 7월 1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세상은 어두워도 이 땅은 밝다

《나는 지금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있다. 악성병마에 남편과 자식을 잃고 폭우와 큰물과 집과 가산까지 잃었으니 살길이 막막하다. 한치라도 가능할수 없는 이런 삶이 정말 지겹다.》

이것은 얼마전 인터넷에 실린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여성의 물음에 적은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글도 찾아볼수 있었다.

《나는 두눈을 볼수 없는 장애인여성이다. 그러나 나는 어둠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의 마음에 광명을 주고 따스함을 주는 사회에서 태어난 나의 삶이야말로 복받은 삶이다.》

이 글은 인터넷에 실린 공화국의 한 장애인여성의 토로이다. 두 여성의 대조되는 말에서 밝은 나라와 어두운 나라, 희망에 넘쳐 사는 인민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인민의 실체를 보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밝은 세상에서 불빛찬란한 거리가 오색영롱한 빛으로 휘황한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로 찬란하고 물리와 도덕으로 문명한 악의 어둠이 없는 나라에서 살기를 기원했다.

하기에 계몽주의문인의 대표자인 도이힐란트의 작가 피레는 유언대신 《좀 더 빛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또 민심을 등진 악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어두운 악의 그늘이

드러우면 수십수백만 인민들은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밝은 세상을 지향하는 투쟁으로 맞선다.

한점의 그늘도 없는 밝은 나라, 밝은 세상은 빛과 열로 만물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자연계의 태양도 만들수 없는것이다.

허나 이 지구상에 그 어느 구석을 둘러보아도, 그 어느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아도 그늘 한점 찾아볼수 없는 밝은 나라, 밝은 인민들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공화국이고 공화국인민들이다.

하다면 공화국은 세계적인 대제양과 련속되는 자연재해속에서 도 어떻게 그렇듯 밝고 무엇으로 그토록 인민들은 광만에 넘쳐있는것인가.

그 해답은 령도자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의 한몸을 강그리 불태우시며 인민들에게 열과 정을 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환히 밝혀 주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혈연의 정으로 품어안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헌신의 사랑과 정을 부여해주고계신다.

어느 한 작가는 말하기를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자식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는분이라고 하였다.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을 못 놓으며 불러보고 멀리에 있을 때는 그리워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보는것이 어머니이다.

인민, 이 부름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사랑에 젖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늘 불러주시는 친근한 호칭이다.

인민을 이끄시여 10년, 이 나날 경애하는 그이만큼 인민이라는 그 부름을 그토록 많이, 것처럼 절절하게 불러주신분은 없다.

그이께서는 새해 첫아침에 하시는 신년사에서, 중요대회들에서 하시는 보고마다에서 인민이라는 이름을 보통 수십번씩 불러주시며 인민을 위한 한해한해를 시작하시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고계신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인민의 편익과 리익부터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정답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라고 호칭하시며 인민을 위한 밀사복무의 맹약을 거듭 다지곤 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한 헌신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의 고생을 묻어 인민들의 소원과 행복을 꿰뚫어가고계신다.

그이께 있어서 꼭 하고싶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을 잘 먹이고 잘살게 하기 위한 일이다.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물고기산앞에서, 황금벌앞에서,

갑자가루산앞에서, 과일대풍앞에서 그이께서는 온갖 로고를 잇고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신다.

그 인자하신 미소에서 인민은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과 정의 열도를 느끼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추운줄도 두려운줄도 모르는것이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 내에게는 영웅초도도 훈장도 필요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밀사복무의 인민관이다.

어머니는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준다.

기뻐하며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슬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큰물이 체 찌지 않은 험한 길로 직접 차를 몰고 가시었고 금시라도 무너져내릴듯 한 위험한 철다리우로 친부모모든 한 위치로 피해지러 인민들을 찾아 가시었다.

큰물피해를 입은 자식들의 마을에서 너무도 뜻밖에도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뵙고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인민들, 자애로운 아버지를 우리르느 그들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하늘이 이 나라 인민들의 집과 가산을 빼앗아갔지만 웃음만은 앗아가지 못하였다.》, 《이제는 수재민들이 살던 집이 력사책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옛것으로 되어버렸다고 보고 터뜨린 세인의 평이다.》라고 부러움과 찬란을 터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신다.

그 나라의 명암을 알려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라는 말이 있다.

세界的 도처에서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천대받고 수난당하며 거리를 헤매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현실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잃은 아이는 단 한명도 찾아볼수 없으며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적인 보살핌속에 로동당대원이 좋다고 노래 부르며 청춘의 활력속에 살고있다.

공화국을 찾아왔던 한 외국인 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자라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다고 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가장 훌륭한 명당자리들에 가장 밝고 훌륭하게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들을 지어주시고 준공레도 이

집에서 살게 될 주인들이 곱도록 해주시었다.

《공화국은 밤마저도 밝은 나라였다!》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보고 터뜨린 세인의 평이다.

황홀한 10월의 밤하늘가에 울려 퍼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절하고 눈물젖은 그 음성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녕 감격없는 들을 수 없고 눈물없는 받아안을수 없는것이였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이 자리에 서고보니 천재 인민에게 무슨 말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 시각 오늘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한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나 기쁨에 넘치고 어디에나 따뜻한 정이 흐르는 밝은 세상이다.

인민의 친근한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공화국은 오늘도 밝고 레일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사랑과 인덕으로 따라하게 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점진해가는 이 나라 이 인민의 앞길은 더욱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은 세계의 등대로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것이다.

7500년이라도 땅을 따르고 지켜 줄 하늘같은 힘을 온몸으로 뿌듯이 받아안게 된다고 하시며 인민과 잡은 손을 더 굳게 잡으시고 천만년미래에로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열정 넘친 고백에서 세인은 비로소 이 나라, 이 인민의 모습이 왜 그토록 명랑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어 그토록 찬란한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사랑과 정으로 밝은 나라, 물리와 도덕으로 휘황한 이 땅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미덕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레사로운 이야기로 되고있다.

어머니를 따르는 자식들마냥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기에 인민들은 누구나 기쁨에 넘치고 어디에나 따뜻한 정이 흐르는 밝은 세상이다. 인민의 친근한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공화국은 오늘도 밝고 레일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사랑과 인덕으로 따라하게 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점진해가는 이 나라 이 인민의 앞길은 더욱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은 세계의 등대로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2019년 촬영

남조선에서

제3차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진행

8월 15일 남조선의 진보적 청년대학생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제3차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진행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김정은시대》를 종합적으로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9년부터 매해 《김정은국무위원장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진행하고있으며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국력》,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개성시》, 《김정은국무위원장 최우선》, 《김정은국무위원장과 편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약속》,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과학자》,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병사들》, 《김정은국무위원장과 1만당원》 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출위인상과 위인헌신, 후대사랑 그리고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령도하시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전집물 29권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1차째 7권, 2차째

24권이 발표되었던것보다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발표대회의 심사를 맡은 통일부를 하면서 복을 잘 알아야 하며 복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해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발표대회를 조직한 대학생들의 용기에 인사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2013년 군사훈련도중 사고로 희생된 해군병사들과 2015년 전투 임무수행을 위한 비행훈련도중 희생된 공군전투비행사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 소개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경애하는 그이께서 2011년 민족의 대국상속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녀려하여 베푸신 은정어린 조치들에 대해 소개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최우선》에 최우수상이, 《김정은국무위원장과 1만당원》,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과 휴양지》 등 3개의 작품들에 우수상이 수여되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판된 작품들을 통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심장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다. 지도자와 주민들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지를 느끼게 하였다고 하면서 격정을 토로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발표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위인상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남조선의 주민들이 연구 자료들을 보면 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발표대회를 많이 진행하여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깨야 한다.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발표된 연구자료 29권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본사기자

발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재침야망

조국이 해방되어 일흔여섯 번째 8.15가 지나갔다. 해마다 맞고보내는 날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 8.15이다.

8.15가 우리 겨레에게 뜻깊은 해방의 날, 민족재생의 날이라면 섬나라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다.

76년전 바로 이날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전범국의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인류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며 인류가 이룩해놓은 막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제더미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감행한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되는 법이다.

1946년 5월초부터 1948년 4월초까지 진행된 국공내전 군사재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일본의 주요전쟁범죄자들에게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해당한 판결을 내리었다.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행이 얼마나 엄중하였는가에 따라 재판에 제출된 범죄자들의 죄행을 립중하는 각종 증거문건이 2만여 통, 판결문은 180페이지, 재판

기록은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하였다는 사실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것은 정의를 지향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류가 내린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으로서

는 8.15를 저들의 치명리는 과거범죄에 대해 솔직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새 출발을 위한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옳을것이다.

인류가 바라보는것도 그것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번 8.15를 맞으면서도 방위상을 비롯한 5명의 일본 본료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범자들을 비롯하여 침략전쟁터에 나섰다가 계속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일본방위성이 2021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선다 이어 최근에 내용은 여러이용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령토로 표시하는 등 령토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있다고하려는 침략군성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있다.

이런 력사관을 가진 일본에게 패망한 날을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재침야망을 더욱 불태우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행위는 지난 세기에 감행한 저들의 침략전쟁이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미명하에 벌인 《정당한 전쟁》이었던 심히 그릇된 력사관의 발로로 된다.

이런 력사관을 가진 일본에게 패망한 날을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재침야망을 더욱 불태우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있다고하려는 침략군성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있다.

8.15를 물서리치는 과거범죄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기회가 아니라 복수의 칼을 버리고 재침야망을 부풀리는 계기로 삼고있는 일본에 세상사람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지난 시기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 하물며 패망한지 76년 되는 오늘에 와서도 과거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행위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두번다시 죄악을 저지르는것으로 된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일본의 움직임에 각성을 높이고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 시켜야 할 리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것이 있다. 지난 세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타민족을 억압한 일 본제국주의에게는 그 행위에 동조하고 적극 가담한 앞잡이, 매국노들이 있었다.

나를 팔아먹은 을사조약이 바로 그러하다. 문제는 나라가 해방되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의 재침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친일매국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근성이 뼈속까지 밴 남조선의 보수세력이다. 제침책동에 미쳐달려있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반일투쟁을 《감정적 대응》, 《정신승리》로 모독하는것도 서슴치 않는것이 《국민의힘》의 력대 조상들이다.

이런자들이기에 이번 8.15를 맞으며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두고 큰일이 난듯이 고아 대고있는것이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수 없는 법이다.

외세의존과 굴종에 환장한 이런 썩어빠진 매국노들이 있는 한 남조선에 자주의 꽃이 필수 없고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도 쉽게 이루어 질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8.15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사대매국세력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자주와 애속, 애국과 애국

자주적인민으로 존엄함이 산다

우리 겨레가 터친 해방민세의 합성으로 산천초목도 감격에 설레이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76년세월이 흘렀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숨겨가던 민족의 운명이 구원된 력사의 8.15가 있어 비로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존엄함이 자주적인민으로 태어날수 있었음을 이 나라 인민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한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고 또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기쁨을 느낀다. 허나 공화국인민들과 같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긍지, 그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자부심이고 영예이다. 지정학적위위로 보면 조선은 대국들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승명론처럼 받아들여야 했던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수난 많던 망국의 운명에 처한 불쌍한 조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애하게 호소도 하고 칼로 배를 갈랐어도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던 식민지약속민족이 오늘 세대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존엄함은 자주강국의 자주적인민으로 솟구쳐올랐다. 실로 하늘땅같은 차이가 아닐수 없다. 오늘 령토도 크지 않고 인

구도 많지 않은 조선에서 울리는 사변적인 소리에 지구가 뒤흔들리고 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계의 비상한 초점을 모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그 무슨 《고강도제재》나 압박봉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자주와 정의를 존엄함은 공화국인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서방언론들이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며 목숨다해 지키는 말 그대로 존엄을 사는 인민》이라고 찬양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라 하겠다.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한번 연었다고 하여 영원한것이 아니다. 잃었던 나라와 인민의 존엄을 되찾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고수하

고 빛내이는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면 뚝뚝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절명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은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확고한 신념으로 새겨져있다.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시었기에 공화국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온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자주적인민, 영웅인민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백년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 공화국인민이 자기의 성실한 땀과 지혜를 바쳐 이루어놓은 창조물들을 보면

자주적인민의 보람과 긍지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을것이다. 무엇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여 남을 쳐다보고 남의 손을 빌어 이 땅에 무엇이 마련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이 값높은 자주적삶을 누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엄과 영예를 한껏 느낄수 있을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공화국인민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함으로써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토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마음대로 통략하는 적대세력들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판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공화국인민들과 같이 자주적대강하고 나라의 안전과 부강번영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인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웅대한 나라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물리치며 공화국인민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와 번영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존엄높은 공화국인민에게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조선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어주시고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사는 세계를 이어 끊없이 빛을 뿌리고 있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외세의 감점과 지배하에서 민족의 넋이 시들어가는 남조선과는 너무도 판이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력사자는 《이 땅에서는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어지없이 짓밟히고 송두리채 사라지고있는 반면에 북에서는 민족적인 모든것이 철저히 고수되고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무참히 약탈, 파괴되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이 땅이다. 하지만 북에서는 자기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발전시키고있다. 북에서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고있을뿐아니라 사회



조국해방 76돐을 맞으며 공화국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매국노들이 활개치는 세상

76년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위에서 해방된 날인 8.15에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한 친일파청산문제를 시골벽적하였다. 이날에 발표된 《광복회》회장의 기념사가 그 발단으로 되었다. 그는 기념사에서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력대 보수 《정권》은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은 대대로 명명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다.》,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가관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물론 보수언론들과 사이비논객들까지 나서 《마무가네 기념사》, 《수많은 국민을 친일파로 내몰았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고야대고 현 당국의 《관여》도 밝혀야 한다며 법적대고있는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친일파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다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남조선정국이 한심하고 끔찍하고 저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강변하는 보수세력들의 행태가 경악스럽다.

《자치론》을 들고다니다가 《상해리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반년도 못되어 쫓겨난 너털한 인간축물이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한사코 《단독정부》를 조작하고는 립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군부의 요직에 《간도르별대》의 간판을 쓰고 항일유격대와 반일독립군을 악착스럽게 《도벌》하는데 앞장선 김석원, 정일권, 백선엽, 리승준, 리종찬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을 들어앉히었다. 그의 집권시기 《국무총리》를 지낸 6명중 3명, 법무부 장관 8명중 5명, 검찰총장 6명중 5명, 치안국장 4명중 3명, 합동참모본부 의장 4명중 4명, 육군참모총장 8명중 8명이 모두 친일파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친일매국역적으로서의 리승만의 정체를 독촉히 알수 있다.

10월 《유신》으로 차단해버린 박정희 《정권》은 어떠한가. 일제강점시기 만주군관학교와 일본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오까모도중위(처음 다가까 마사오) 《창세기명》했다가 순수한 일본본세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오까모도 미노루로 함) 박정희는 《친황의 적자》로 자처하면서 반일에국인사들과 독립군에 대한 《도벌》에 날뛰던 악랄한 친일매국노이다.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이후 군부와 정치권에 친일인물들을 대대적으로 박아넣었으며 매국적인 《한일협정》체결을 강행하여 일제의 식민지적악을 무효화하고 일본사 무라이들을 집단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 시기에 와서 남쪽땅은 말 그대로 왜색왜풍의 오염지대로, 가는 곳마다 게다가 짝을 때까거리며 호아리를 날뛸때는 왜나라축속들의 활무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이에 대하여 잡지 《말》 2001년 9월 1일호는 어느 한 글에서 《독립군을 도벌하

던 일본군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사를 외곡하던 장본인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알량한 지식은 앞세운 친일인사들이 독립유공자를 시시해왔다. ... 친일파들의 가장 과격치한 행위로는 이들이 독립유공묘상을 받고 국립묘지에 빠지지 누워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친일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고도 남는 우리 현대사라 하겠다.》라고 개탄하였다. 박정희가 얼마나 친일매국에 열을 올렸으면 그가 김계규의 총알에 비명횡사하였을 때 일본군우정객들이 《마지막광군이 죽었다.》고 비통해마지 않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 일본의 제침책동에 걸잡이가 되어 날뛰어온 리명박역도 이 미 넌리 알려져있다. 이자의 친일굴종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마자 일본정부 《특사》 자격으로 남조선에 날아온 전 일본수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었으면 오늘이 불

행해질수밖에 없다.》,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유신》 독재부활을 꿈꾸다 초불항쟁에 의해 감옥에 처한 박근혜의 친일 굴종행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유신》 독재자를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을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노들을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히었으며 리명박집권시기 각계층의 격렬한 반대투쟁으로 체격되지 못했던 일본과의 군사정비 공유 《협정》을 맺는 매국노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밖에도 김두환, 로태우, 김영삼을 비롯해 남조선의 보수집권자들의 친일행적을 폄자면 열백발을 밝혀도 모자랄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력대 국무부수당국자들은 하나같이 태생적인 친일매국노들이었으며 그들의 심기경호원노릇을 하며 알성전 매국행위를 하던것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조상들인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패들이 왜 《광복회》회장의 기념사에 불개미집안 쭈셔놓은 듯 뚫어대고있는지 알만 한 것이다.

친일매국의 계주봉을 이어온 력대 보수 《정권》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찌기 규정하였듯이 력대 남조선의 보수집권자들은 한바탕 살되어 찌지 않는 친박한 친일매국노들이었다.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초대대통령》이라고 구구 떠받드는 리승만부터 보자. 이자는 미국에 가있을 때인 1918년에 벌써 자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밝힌 친일매국노이며 《위인통치론》과 립을 갈망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미국에서 손매물려 키운 오랜 친미주인 리승만을 내세워 끝내내 《단독정부》를 조작해낸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덴 델레스가 《내가 제임중에서 미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쿠데타였다.》고 고백한 사실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미국이 친미주인들을 통한 식민지지배확립에 얼마나

멋대로 군사기지를 차려놓고 전쟁연습을 벌여놓아도, 유독성체기물을 마구 버려 산천을 황폐화시키며 나중에는 핵과 생화학무기까지 마음대로 끌어들여도 벼속소리도 할수 없게 되어있는 곳이 남

이 출을 추며 란동을 부렸지만 남조선당국은 《행정협정》에 코를 빼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남조선은 사상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되어있다. 미국에 대한 숭미, 공미사상이 오래동안 주입되어 위정자들과 국무부수대기들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으며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사람들을 범죄와 타락의 길로 끌고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굴종의 땅, 예속의 땅이라는것을 웅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과의 《협정》, 《군인간 동맹》이라는 말이 요란스레 울려나와도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결코 감출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범**

또한 《화해, 치유》라는 명목밑에 특대형반일통치약인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해주는 제단이라는것을 내오는가 하면 독도를 표현할 때 《다게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표기해도 된다는 쓸개빠진 지령도 내렸다. 박근혜의 친일인사들은 《총리》로 내세웠던 문정숙이라는자가 2011년 6월 어느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은것이 드러나 쫓겨나지 않았으면 안되던 사실 하나만 놓고도 잘 알수

고 떠들면서 남조선을 일본과의 《협정》체제구축으로 강압적으로 떠밀고있다. 단체 신채호는 일찌기 《력사는 력사를 위하여 서술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꾸며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까마귀가 흰털을 한다고 백로가 될수 없듯이 《국민의힘》이 《친일이 아니라 국적이고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왕나뭇을 불러대도 어지러운 친일매국과 민족번역의 력사를 감출수 없다. 친일의 후예들이 친미로 변신하여 정치권력의 감투를 쓰고 친일친미매국에 날뛰는 한 남조선에서 매국배족의 범위는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굴종의 력사는 오늘도

8.15직후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을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켜왔다.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합리화, 공고화하기 위해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꼭두각시정권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배후조종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치욕과 굴종을 강요하였다. 나라의 분열을 반대하고 북남총선거에 의한 단일정부수

립을 갈망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미국에서 손매물려 키운 오랜 친미주인 리승만을 내세워 끝내내 《단독정부》를 조작해낸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광분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을 하는 당선되면 제임선참으로 대양 건너 미국상권을 찾아가는 농도장을 찍고 오는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져 온것도 남조선의 종속적인 대미관계에 잘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되어있다. 세상에는 외국군대가 돈 한푼 내지 않고 아무데나 제

조선밖에 없다. 미군이 살인, 강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들을 마구 저질러도 《치외국권》의 명목아래 손가락 하나 다칠수 없게 만든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또 어떠한가. 얼마전에도 악성전염병사태로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강점 미군이 어느 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도 없이 술을 마시고 미친듯



지배와 굴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시론 절망의 선택

속에는 검은것을 품고있으면서도 겉으로 진실하고 선량한채 하는것을 위선이라고 한다.

입으로는 《평화》를 운운하고 행동은 침략전쟁연습에 몰두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해 력설할 때에는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러다가도 3월과 8월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시기가 닥치면 《연기》, 《축소》를 광고하면서 그 누구의 《량해》, 《리해》를 끌어내보려고 모지름을 쓴다.

외세와 속덕공론하는것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작전계획이고 그 실행방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성격의 전쟁연습을 《방어적》이라고 내외여론은 물론이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운운하는 자기 자신마저 기만한다.

해마다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마치 정상적인일것처럼 여기며 《년례적》이라고 하는 궤변은 또 어떠한가.

형사법상으로 볼 때 누구를 살해하기 위한 음모가 리론단계나 연습단계에 있다면 미수로 그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병리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머리가 잘못되었거나 유전적인 고질병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하기때문이다.

외세의 지휘봉에 따라 수십년동안 끊임없이 벌어지는 침략전쟁연습을 《용당행적》이라고 여기는 남조선호전세력도 체질적이

고 유전적인 사대병, 대결병이 광증으로 표현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호전세력에서는 《북의 도발》소리가 심심치 않게 울려나오고있다.

침략적, 군사적도발의 진원지가 어디인데 그 누구의 《도발》타령을 하고있으니 도적이 매를 드는것보다 더한 정치적도발이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다.

원래 자기의 죄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구를 갈구망질하는것은 비열하고 비겁한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격화와 도발은 외세의 손길에 돌아나는 남조선호전세력에 의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구밀복검이라고 입에는 《평화》, 《긴장완화》의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위선으로 가득찬 위정자들이 분명하다.

위선은 생리적으로 배신을 배태한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과 시대가 지향하는 평화, 통일념원을 헌신짝버리듯 하고 반전의 시기에 전쟁도발, 전쟁대결의 길을 선택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희망과 절망, 남조선호전세력이 끌끌내 절망을 선택한 이상 그것은 엄청난 대가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시간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척도이다.

정 필



보수야당내부에서 커가는 한숨소리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 힘》이 더위먹은 개구리꼴이 되어가고있다고 한다.

《정권교체》, 《보수대통합》을 고야대던 기세는 어

디 갔는지 《현재 시점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점점 퇴거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한숨소리만 커간다고 한다.

1만명》이라는 별명이 붙어돌아다닌다.

실례로 윤석열은 《주당 120시간근무》, 《돈없는 사람은 불쌍시킴이라도 사먹게 해야》 등의 황당하고 얼빠진 소리를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었다.

맞는 《동북북》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윤석열뿐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것은 위험한 발상》, 《너성가족부제》 등의 궤변들을 늘어놓는 얼간이를, 성명퇴진과자, 이런자들이 《대선》후보로 나선것이 《국민의 힘》이다.

오물통에 반식하는것이 쉬파리메네인 아무런 거지에서 꿀벌이 생겨날수야 없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자, 헤나, 메찌, 망구스와 같은 들짐승도 있었고 들고래, 고등어, 멸치 같은 바다동물도 있고있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김빠진 《정권심판》론

지난 4월 보충선거때까지만 하여도 《국민의 힘》은 《정권심판》, 《정권교체》를 전면에서 내걸고 현 당국의 방역실책, 부동산문제, 민생파탄 등을 중요하게 들고는 어지면서 여론화하였다.

불난 집에 가 옷 말린다고 민심이 아파하는 문제로 당국을 공격하던 그대로 저들의 《대선》승리로 이어질것이라고 타산하였던것이다.

하지도 말도 없는 동태를 겪는다고 할수 없지 않은 그 누구에 대한 혐구만 늘어놓으

면 사람들은 수다쟁이로밖에 여기지 않는것이다.

《국민의 힘》이 그 꼴이다. 남조선인민들이 관심하는 부동산문제, 방역문제 등 민생을 위한 마땅한 대안이나 대책은 《정권심판》으로 덮어놓고 그 무슨 《안보》라면서나 넘볼처럼 외우고있으니 누가 어떻게 민짚는가 하는것이다.

결국 《국민의 힘》이 떠들던 《정권심판》론은 김빠진 풍선처럼 불꽃없이 오물장으로 갈 시간만 기다리고있다.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파리가 꿀벌이 될가?

남조선에서 흔히 선거는 인물경쟁이라고 한다.

《국민의 힘》에도 인물이 라는것들이 《대선》후보로 나왔는데 깎아놓는지 오랜 사자처럼 도무지 인기가 없어 속을 삭고있었다 할수없이 이레저레 끌어들

인 인물들이 바로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전 감사원장 최재형이다.

시거든 뺏지나 말렸다고 정치문화의 한면이 임부리를 조심해야 할때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웃기거나 아연하게 하는것이어서 《1일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국민대통합》, 그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권력이라는 뼈다귀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가 언제 있었단가.

일제의 침략성과 악랄성을 고발하는 자료

최근 남조선에서 과거 일제가 패망직전에 조선반도를 저들의 방패막이로 리용할 계획을 세운 범죄사실이 폭로되어 민족적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있다.

남조선의 동북아시아력사재단의 한 연구위원은 일본방위생산사 정책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에서 력사자료를 수집하던 과정에 《1945년 3월 예하 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원복조병창(병기창)》이라는 제목의 쿠비문서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문서를 통해 일제가 패망직전인 1945년초 《본토결전》을 준비하면서 총 7가지로 된 일명 《결호 작전계획》이라는것을 세웠으며 여기에 전쟁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주요시설의 지하화》를 계획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일제는 도쿄 제1비기창을 부평으로 옮겨 지하시설로 건설하여 전쟁의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미군의 매일공격이 저들의 땅에 집중되는것을 분산시켜 피해를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다.

조선반도를 저들의 방패막이, 희생물로 삼기 위한것들이었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일제의 조선인강

제정용맹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증거가 드러난것이다.

쿠비문서에는 1945년 3월 부평병기창건설에 동원된 로동자수는 1만 1300명, 그중 약 9000명이 조선사람이며 모자라는 인원은 서울과 인천의 중등학교에서 징발된 약 930명의 학도병들로 보충했다고 한다.

이로써 인천시 부평구 함흥산일대에 있는 수십개의 지하시설들이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강제동원하여 건설한 병기창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으며 조선인강제징용은 없다고 떠벌던 일본의 파렴치성이 다시금 립증되었다.

20세기초 일제는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수십년간에 걸치는 력사에 류례없는 식민지강점통치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켜왔다.

조선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변역》을 위해 필요하지 조선을 위한 조신민족은 있을수 없다는것이 일제의 강도적인 논리였고 《대일본제국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라 한다》는것이 극악무도한 살인악마들의 민족말살내우리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남조선군내에서 성추행, 집단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나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말년 남조선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녀중사가 처유를 참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지난 5월 상급인 남성과 식사를 하던 도중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후에도 가해자인 남성은 점심시간이면 녀중사에게 계속 술을 따르게 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3년동안 재수가 없을것이라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고받은 해당 부대장은 녀중사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신고하면 진급에서 무탈할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고통을 이겨내

지 못한 녀중사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남조선공군 녀부사관성추행사건이후 불과 석달만에 또다시 터진것으로 하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색대로 색은 남조선공군의 이런 실태에 대해 남조선 각

그러면서 《계속되는 군내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교체와 관련자들에게 대한 처벌을 주장해나섰다.

어느 한 녀성사회단체도 론

채로 안개를 물내려버는것과 같은 미련한것이다.

남조선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행위는 결코 몇몇 개별적인 장교나 사병들에 의한 자연발생적이며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생활방식과 씩어빠진 문화가 판을 치는 남

단 공병대대에서 사병들 사이에 집단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임병들이 일과시간이후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보관창고로 데리고 가 가두고 《네가 잘 못하게 했어서 간지러운거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폭언을 내뱉다 못해 폭발위협성이 많은 참고안으로 불을 단 물체까지 던져넣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선임병들은 수시로 피해자의 군화에 알콜을 뿌린 뒤 라이더로 불을 붙이려는가 하면 토목공에게 가두고 좁은 틈을 통해 탈출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사실들은 정신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타락하고 극도의 인간중요성상으로 길들여진 남조선공군의 부패상을 만천하에 날날이 부각놓고있다.

본사기자 한복순

패망직전 제주도에서의 일제의 최후발악상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

현황조사 및 증언채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제는 패망직전에 일본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거점을 제주도로 선정하고 제58공의 동굴진지를 파놓는데 대해서 《결7호》라는 작전명의로 제주도의 전지역을 동굴

진지로 요새화하였다고 한다.

일제가 제주도에 파놓은 동굴진지는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모두 448개이며 그가운데는 해군특공대의 소용함정고 어뢰를 감추어놓는 동굴, 고사포를 숨겨놓는 동굴, 지휘소 역할을 하는 동굴, 보병은메동굴, 관측용동굴, 섬이

함락당하였을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살동굴 등이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일제가 동굴진지를 굴철망 당시 강제로 동원되었던 제주도 수탈행위 등을 직접 목격한 제주도주민 13명의 증언자료들도 기록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언론은 남조선동굴안전연구소와 제주도동굴연구소가 해당 동굴들을 복원하여 일제의 과거 조선침략죄행을 폭로하고 반일적성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하였다.

본사기자 한복순

《동물원정당》

그럼 《히에나》는 누구? 당대표 리준석이 《후보들결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히에나가 없었으면...》 했는데 윤석열주변의 중진의원들을 빗댄 말이라고 합니다.

웬걸, 그들만 《히에나》이겠습니까.

모든 《대선》후보들의 주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당 인물들을 짐승취급하다보니 황궁에서 울러나온 《경멸이 없다》, 《애송이》란 소리가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동물원정당》의 동물들답게 대표와 후보들사이, 후보들끼리 야옹야옹, 아니 으르렁대는 꼴은 더 가관입니다.

윤석열이 개인일정으로 당회에 못 참가하겠다고 하니 《당을 개무시한다》는 욕설이 금시 튀어나오고 당대표가 후보들의 토론회를 조직하였던 윤석열측에서는 《월권행위》, 《당대표탄핵》이라는 반발이 울퉁거리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후보들 쪽에서는 《훈련 안된 들고래》라는 비난이 또 뒤따릅니다.

보기가 딱했던지 《국민의 힘》의 한 의원이 말했습니

조선특유의 자랑

세금이 관 말조차 모르는 나라

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하루 빨리 복구발전시켜 자립적인 경제를 도모해 달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자금원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자립적인 경제체제가 세워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인민적정책이 베풀어졌고 환란의 자금이 그처럼 귀중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30%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도 대폭 낮추어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시책을 베푸신 아버지수령님께서 1960년대 중엽부터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농업현물세의 완전한 폐지로 공화국이 남아있던 세금들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충적없는 자금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후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는데 따라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은 성숙된 단계로 제기되었다.

공화국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데 대한 법령은 1974년 3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 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데 대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뒤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공화국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공화국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다.

법령이 발표되자 세계는 법석 뿔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 (영국학자 토마스 스크트)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기자 존 헤스터)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며 희망이다. 공화국은 이 리상, 이 희망을 완전히 실현하였으니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러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일본 전국학생단체연합회 회장 우찌다 마사노)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세금제도폐지는 20세기 인류사적사변의 하나로 행성에 큰 충격

재해는 있어도 불행은 없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 수백만년이 흘러갔지만 오늘날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는 인간생활에 막대한 재해를 들쳐주고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수백, 수십년동안 이루어놓았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흑심하게 파괴하고있는 자연재해를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다.

재해로 삶의 거처를 하루아침에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 살길이 막막하여 터치는 통곡소리는 지구상 그 어디서나 울리고있다.

한마디로 재해는 수많은 가정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류의 운명을 란도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재해는 있어도 불행은 없는 땅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꽃피는 공화국이다.

얼마전 함경남도안의 일부지역에서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에 따라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재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지금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피해복구전투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지난해에도 자연의 광란이 공화국의 여러 지역들을 사정없이 휩쓸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뜻밖의 재해를 당했었다.

하지만 어디서든 한숨과 비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볼수 없었다.

누구나 남의 불행을 제일처럼 여기며 서로 도와나갔고 온 나라가 떨쳐나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하여 피해복구사업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힘있게 진행되어 피해지역들이 불과 몇달안에 어제의 모습을 썼은듯이 가셔내고 황홀한 별천지들로 전변되었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주민들이 돈 환란 안 내고 국가로부터 덩실덩실 새 집을 받았고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피해지역들마다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감동적인 화폭은 오직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몇해전 어느 한 나라에서 심한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태풍을 생각하고 저마끔 살인과 강탈을 일삼았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두고 현지 주민들속에서는 《실로 아비규환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도와달라》

원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특징을 가진 세금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수천년을 내려왔다.

그 오랜 세월 온갖 사회악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없애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계속 존재해왔지만 그것을 실현한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피어린 항일전쟁으로 나라를 찾아주시기 위해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탁탈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 해주셨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확립해주시신 새로운 인민적인 세금제도는 일제에 의해 혹

을 주었다.

《그때로부터 수십여년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 공화국은 헤아릴수 없이 큰 시련들도 겪었지만 인민들은 언제 한번 세금을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봉쇄책동과 압력으로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국가의 인민적정책은 변함없이 있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적정책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있다.

누구나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비단 그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며 심지어 료양을 떠날 때 드는 러비도 국가가 부담해주고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채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창조한 모든 재부가 국가에 의해 고소란히 인민의 복리에 돌려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어

떠난다.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해갈수 없다》, 《세금에 매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각종 세금의 명목하에 국가에 뜯기는 서민들의 괴와 기쁨》...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높아만 가고있는 아우성이다.

수십층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에서도 《골세》, 《월세》로 불리는 세금이 계속 뛰어올라 주민세대의 빛은 덩어리처럼 불어나고있다고 한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전세보증금이 올라, 또 월세가 올라 한숨쉬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대이다. 모두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지출이다. 시름에서 겨우 벗어난 서민들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한계단만이라도 더 올려주도록 해줄 희망의 사다리가 절실하다. 빚으로 엮은 사다리는 그야말로 빚봉은 개살구일뿐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세금이라는 울가미가 근로인민대중의 목줄을 더욱 조여대는 자본주의사회와 세금이 말조차 모르는 공화국의 현실이 시사해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본사기자 김춘경



다채롭게 진행된 8월 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얼마전 공화국의 각지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다채롭게 진행되어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전시회에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구역직매점 리용생산반들, 가내작업반들에서 생산한 피복류, 신발류, 가방류, 세소상품을 비롯하여 1만여종에 400여명칭의 인민소비품들을 전시하였다.

시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각 구역, 군안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소비품들을 자기 지역의 직매점에서 전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판매도 해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가, 어느 단위에서 생산한 소비품이 인기를 모으는가를 알아보고 해당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천구역직매점에서 진행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는 보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어느것이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운평천구역직매점 경리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독특하게 착상하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곳 직매점리용생산반에서는 부산물들을 회수, 선별하여 인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놓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든 소비품들은 지난 기간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 경연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천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각종 인민소비품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평천영예군인일용품공장에서 만든 조리, 물품을 비롯한 수지제품들, 평천부재공장에서 만든 책꽂이, 책상, 사진액틀, 평천구역도시미화사업소에서 만든 의자, 약철기, 나무화분들, 평양시인쇄공장에서 만든 종이구력, 학습장, 대동강건축지공장에서 만든 소꿉이, 옷걸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제품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끌어당겼는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어느것이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비단 평천구역만이 아니다. 함경북도에서 진행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도 지방의 혼란 원료, 재료를 리용하여 만든 4 500여종에 30만여명칭의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에 활짝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듯이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가방류, 다양한 여름계절옷들을 비롯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소비품들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남포시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는 재자원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천리마구역과 강서구역, 항구구역, 와우도구역에서 전시한 소비품들이 수요가 높았다.

차명우 천리마구역직매점 경리는 《전시회를 통하여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재자원화라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제품을 얼마든지 잘 만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었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소비품들은 재자원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실정에 맞게 생산한것들로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주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는 국가적인 큰 투자가 없이도 가내작업반과 리용생산반을 강화하여 필요한 소비품을 보다 다종다양하게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정액이 또 입맛을 잃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군.》 하며 신웃 수저를 들지 못했고 잔바람이 부는 날에는 《정액이 이런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말아야겠는데...》 하면서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던 아버지였다.

수년세월 아버지, 어머니가 공원에 나가 아령운동, 팔다리운동, 목운동 등 회복운동을 시켰었다.

언제인가 김정액은 로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일으켜세우려고 합니까? 이날껏 알고있던 정대문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남이런 없습시다. 나라에서 아끼고 내세우는 장에 군인인 그는 우리모두의 양한 아들입니다.》 남이란 없다!

허송국로인의 이 말에 사회주의사회를 왜 덕과 정이 넘치는 화폭한 대가정이라고 부르는데에 대한 대답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 인간의 정이 말라버릴대로 말라버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우리》란 없고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1인세대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직장은퇴와 리혼 등으로



세계적인 발명이 더 많이 나올것이다

— 석광철 발명총국 처장과 나눈 대담 —

얼마전 공화국에서 최우수 발명가상이 제정된것과 관련하여 기자는 석광철 발명총국 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에 최우수발명가상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석광철: 지금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동원한다면 각계층 근로대중중에서 세계선진수준을 돌파하고 경제강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하는 훌륭한 창의고안과 새로운 기술적발명들이 수없이 나올수 있다.

이로부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들을 평가하고 적극 내세워줌으로써 대중의 발명열의를 더욱 높이고 세계적인 발명이 더 많이 나오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하여 최우수발명가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최우수발명가상은 해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여 최우수발명가들에게 수여되게 된다.

기자: 최우수발명가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가.

석광철: 최우수발명가는 해마다 국가적의의를 가지고는 특출한 발명을 한 발명가들 가운데서 3~5명정도 선정한다.

최우수발명가는 세계선진수준을 돌파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한 발명가들로 선정한다.

또한 최근년간에 국가적의의가 있는 여러건의 발명을 하였을뿐아니라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 발명가들로 선정한다.

기자: 최우수발명가상이 2.16과학기술상, 과학기술혁신상과 다른 무엇인가.

석광철: 2.16과학기술상과 과학기술혁신상이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수여된다면 최우수발명가상은 일군이건 사무원이건 로동자이건 학생이건 할것없이 최우수발명명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여받을수 있다.

그리고 2.16과학기술상과 과학기술혁신상이 국가과학

우리와 나

기술성과로 등록된다면 최우수발명가상은 발명(특허)권으로 등록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자: 최우수발명가상이 제정된대 맞게 어떤 실무적대책을 세우고있는지 알고싶다.

석광철: 최우수발명가상이 제정된대 따라 발명총국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단위들에서는 최우수발명가상수여대상추천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국가과학위원회와 2.16과학기술상심의위원회는 추천된 대상들을 엄격히 심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최우수발명가들을 선정하게 된다.



최우수발명가는 2.16과학기술상수여식에서 내각의 명의로 발표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최우수발명가상은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문화건설을 적극 추동하며 나아가서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